지역 소식통

부안군, 농업 · 농촌 · 식품 산업 발전계획 보고회 개최

지난 23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부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부안군수를 포함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그동안 진행된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부안군의 특성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되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중간보고회는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며, 부안군만의 차별화된 비전과 목표가 담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현장 점검

정읍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 80곳 중 30곳을 대상으로, 2인 1조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여부, 공제증서 및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각적인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시는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주요 사항을 중개업자들에게 숙지시키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특히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 강조됐다.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시정 조치가 이뤄졌으며, 서명·날인 누락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확인서를 징구해 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학교복합시설 추진 본격화

학생 · 시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공간… 2027년 개관 목표 본격적인 궤도 올라

정읍시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4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2027년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협약 내용에는 △복합시설 설치 △사업 시행 △소유권 및 운영 비용 부담 △운영 관리 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사항이 포함됐다. 시는 정읍교육지원청과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정읍제일고 내 약 1만 4909㎡ 부지에 총 사업비 172억원(국비 86억, 시비 86억)을 투입해 3개 동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문화 공간이 마련된다.

첫 번째 동인 꿈이룸배움터는 지하 주차장을 포함해 공연장, 진로진학상담실, 웹툰 교육실, 영재교육실, 오케스트라 합주실 등 다양한 교육·문화 시설이 3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두 번째 동인 다목적재능관은 체육관을 포함해 식품가공과, 동아리실, 목공실, 헬스장 등으로 구성된 2층 건물로 지어진다.

세 번째 동인 기존 체육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더욱 현대적이고 쾌적한 시설로 탈바꿈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또한 시는 주변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150면을 새롭게 조성하며,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인도도 개설할 예정이다.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어울림정원도 조성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학교복합시설 실시협약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학생과 시민들에게 최상의 복합문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청년정책협의체, 청년간 소통의 장 마련

고창군, 2024 청년 페스타 개최

고창군이 지난 25일 오후 1시 고창군 신재효판소리공원에서 청년정책협의체가 주관하는 청년 행사인 2024 청년 페스타를 개최했다.

고창군에서 활동하는 100여명의 청년이 직접 진행하고 참여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청년정책협의체의 청년 선언문 낭독과 기념사로 청년 페스타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성과발표회에선 5개팀의 창업제품 △잔챙이하우스(대표 유지연)=캐릭터를 활용한 의류, 이모티콘 등 굿즈 △금군양조(대표 김원형)=청보리, 멜론 활용 증류주 △고인돌 공예(대표 유혜경)=고창 특성 전사지 개발 △마더스초능력(대표 유연)=무설탕 발사믹식초 활용 음료 △토카르마데라목(대표 최대원)=CNC를 활용한 수제 원목제품) 소개와 향후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

또 상설 프로그램으로 고창군 로컬JOB센터의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 진행됐고, 무드등 만들기, 업사이클링 양말목공예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청년들의 플리마켓 판매부스가 운영됐다.

이외에도 야외마당에서 진행된 청년사업가 10개소의 제품 전시와 버스킹 공연 등 청년 및 지역주민이 음악과 함께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성과공유회에 참여한 한 청년은 "고창군에서 진행하는 청년 정책사업에 선정되어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었다"며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고창군이 더 발전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청년도시로 고창군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공공비축미곡 수매현장 방문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25일 상하면 농협창고에서 이뤄지고 있는 '2024년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수매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농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올해 고창군의 미곡 총 매입량은 1만342톤으로 공공비축미 8155톤, 시장격리곡 2187톤이며 이중 산물벼는 1935톤이며, 건조벼는 8407톤이다. 건조벼 물량에는 작년에 이어 두 해째 매입하는 가루쌀 1157톤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참여농가 인센티브 물량 997톤, 애프터미곡((APTERR, 해외원조용) 1000톤이 포함돼 있다.

산물벼는 관내 농협 RPC와 DSC를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신동진 품종을 매입하고, 건조벼는 2개 품종(신동진, 수광)을 읍·면 21개소에서 오는 11월 25일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수매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품종검정제도에 따라 출하농가 중 5% 정도를 표본으로 선정, 시료를 채취해 검정한다.

그 결과 정부가 정한 매입대상(신동진, 수광) 외 품종이 20% 이상 혼입되면 다음 연도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수매참여농가는 수매참여시 매입품종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해 결정, 매입대금은 농가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매한 즉시 중간정산금을 작년보다 1만원 인상한 4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오는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초기소화훈련 · 인명구조훈련'

농어촌공사 부안 · 부안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합동훈련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완중)는 지난 25일 직원 44명과 부안군소방서 119안전센터(센터장 양창환) 6명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합동훈련은 화재의 최초 발견자가 화재사실을 전파하고 소방서에 신고하는 통보훈련과 대피유도 훈련, 반출훈련과 자체소화, 구급반을 편성하고, 초기소화훈련, 인명구조훈련을 목적으로 부안소방서 119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했다는 것.

부안지사는 자율소방대 편성표를 4개 분대를 구성해, 11개 반을 편성하여 초기 발화점을 시작으로 진화작업을 완료하기 까지 신속하게 움직여 합동훈련에 참가한 소방서 관계자로부터 분대의 임무를 잘 숙지하고 있다 강평이다.

양창환 소방서센터장은 소화기 사용방법과 소방호스의 관리및 사용방법 등 설명하고 방화관리자의 임무와 소방합동훈련을 하는 목적에 대해 직원에게 설명하는 등 자율소방대의 역할과 임무를 강조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 샘고을시장, 2025년 시설 현대화 공모 선정

도비 5억8200만원 확보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서 샘고을시장이 최종 선정돼 도비 5억 82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샘고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시장 내 노후된 공용통로의 비가림 시설을 교체하고, 전기, 소방, 통신 등 안전에 필수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샘고을시장은 노후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밝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을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는 이학수 시장이 큰 역할을 했다. 공모 진행상황을 직접 챙기며 전북자치도의 예산 동향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지역 도의원과 상인회장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얻어낸 성과라는 평가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샘고을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만들어 전국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중대산업재해 대비 '비상 대응 훈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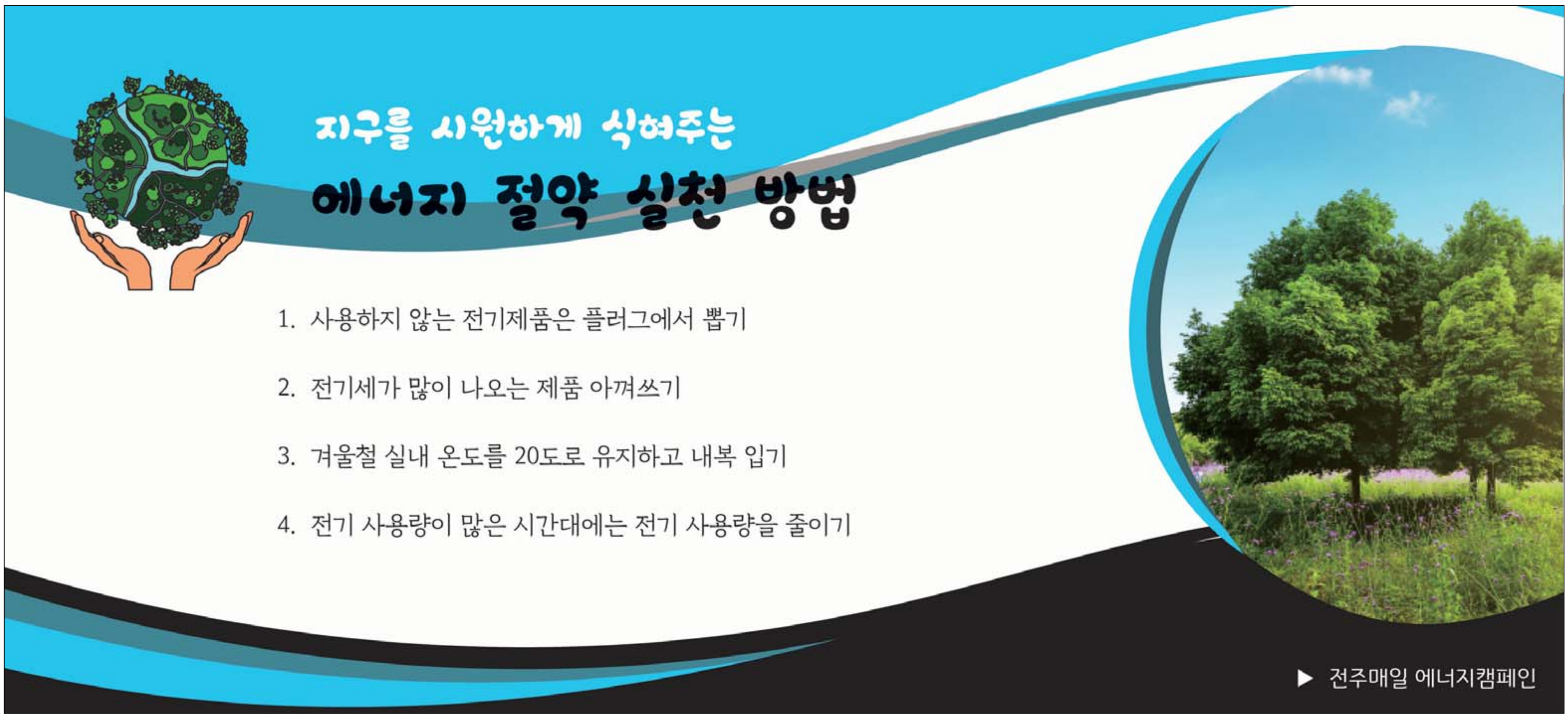
정읍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 매뉴얼 교육과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근로자들의 재해 대응 능력을 키우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정읍시 중대산업재해 대응 비상조치 매뉴얼'에 기반한 시나리오를 활용해 각 부서별로 사고 발생 시의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역할별 임무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CPR) 교육과 실습을 통해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도 함께 강화했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과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학수 시장은 "중대산업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교육이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해 직원들이 재해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직원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